

# 라임·DLF에 데인 투자자... 차라리 구글·애플에 돈 묻는다

## 재테크, 길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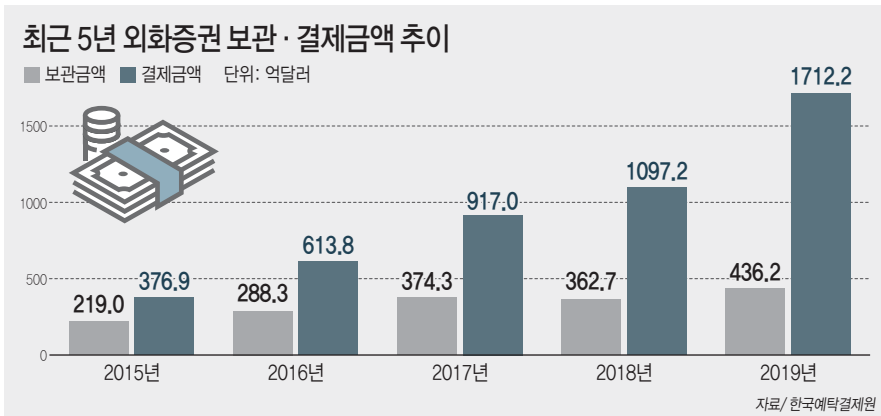
### 해외주식 열풍 현재진행형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 해외로 눈길  
美 주식 안정적, 中 고수익률 기대  
코로나 사태, 포트폴리오 수정 필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주식을 선호한다.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자본가가 되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는 자동차 사는 대신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이 커졌지만 주식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특히 해외주식 직구도 인기다. 구글, 애플 등 미국 주식은 해마다 시가총액을 바꾸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시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증권사도 고수익 추구형 추천주를 내놓고 해외주식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해 해외주식투자 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12억2000만달러로 전년(1097억2000만달러) 기록을 훨씬 웃돌았다. 외화증권 보관금액 역시 436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해외주식 인기 여전... 산업혁명 관련 주 '주목'

올해 해외주식투자 열풍은 지난해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등 문제가 불거지며 구조화된 펀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안 투자를 고려하던 상황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매수세는 해외주식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방증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매수액은 29억7286만달러로 전월보다 42.29% 늘었다. 매도액은 전월보다 19.67% 늘어난 21억9706만달러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큰 트렌드에서 해외주식 관심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좋다 해도

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어둡게 보는 시선이 많다"며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올해 역시 해외주식 열풍이라는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망 업종은 주로 주로 꼽힌 반도체를 비롯해 정보기술(IT)과 중국 관련 소비재 등이 꼽힌다. 김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가 종료되면 중국 경기회복과 함께 한·중 분쟁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부각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차전지와 경기 민감주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도주에 대한 대응이 올해 수익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반도체의 융합 회복이 중요하다"며 "미디어와 면세점을 비롯한 중국 소비재 업종에 대한 기대치도 절대적으로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눈여겨 봐야 한다. 유 센터장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우리 생활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 ◆미국 등 안전자산 위주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하되 투자 범위를 확산하라고 조언한다. 이 센터장은 "미국 증시는 올해도 주도 증시"라면서도 "지난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선 차이가 벌어진 증시 쪽으로 확산하며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보다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주식을 같이 투자할 것을 권했다. 그는 "미국 주식을 일정부만 가져가고, 그간 좋지 않았던 중국 증시 비중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 역시 "안전자산을 원한다면 미국 주식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되, 추가 수익률을 노린다면 중국 같은 신흥국 증시가 유망하다"고 말했다.

당장 중국 증시 상황은 좋지 않다.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3일 중국의 대표 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23일보다 8.73% 급락한 2716.70으로 개장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지역 증시가 이미 크게 내린 터라 중국 증시 역시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장에서도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에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시 비중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 역시 "신종 코로나가 장기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요즘처럼 조정받는 국면이 매수할 기회"라고 말했다. 전염병에 의한 불안정성에도 중국 투자는 여전히 유망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기업이나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면 상장지수펀드(ETF)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요새 ETF는 시스템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이라며 "4차산업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ETF란?

인덱스펀드를 거래스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현충원 참배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적격 당첨 꿈도 꾸지마!”... ‘청약홈’ 오픈

### 국토부 온라인 접수 창구 변경 금융결제원 대신 한국감정원서 접수

3일부터 아파트 청약에 위한 온라인 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었다.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지난해 1만4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년 6개월여 준비 끝에 새 '청약홈'을 열었다.

따라서 사전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당첨취소' 사례가 없어지게 된다. 청약홈은 아파트투유와 달리 청약 신청

전 단계에서 청약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청약가점 가능성을 높으려면 청약가점을 높게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보니 오류가 많았다.

지난해 사후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1만 8163명에 달했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청약가점 오류(1만4051명)이다. 이는 청약가점을 계산하기 위해 넣는 기본 정보 중 무주택자 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다.

가점을 높이려고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기준을 잘 못 알았거나 실수한 경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신청도 못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케 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청약접수를 해 왔지만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으로 단일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자회사 시너지 위해 지주회사 필수 조건

### » 1년 '기업은행, 지주사...'서 계속

KB금융, 신한금융 지주회사가 비은행 부분 확대를 통해 은행 의존도를 60% 수준까지 낮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안팎에선 윤 행장의 발언이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해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회사간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선 지주회사 전환이 필수적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지주사간 고객정보를 활용한 연계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자본규제 속에서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은행 계열사를 은행과 병렬구조로

만들어야 수익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 윤 행장의 경우 정부의 동의를 끌어내기 쉽다는 점도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행장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면 모르겠지만 경제·금융분야에 종사해 왔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했고, 우리 정부 때 경제 수석,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해 경력 면에서 미달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임을 얻고 있는 윤 행장이 지주회사 전환을 주장할 경우 추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포스코, AI 활용해 불공정 약관 찾는다

### 약관 공정화 시스템 구축·가동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의 약관 공정화 시스템 '포스 컴플라이'(POS-Compli)는 포스코가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 약관을 담당인 기반 AI로 일괄 심사해 불

공정한 부분을 자동 검출하고 법무 검토를 통해 개선된 약관을 회사 표준으로 등록·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법무실에서 해당 부서가 검토를 요청한 약관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앞으로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가 가능해지면서 검토 시간이 크게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했고 추후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 관련 다른 법률까지 확대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그룹사별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개선해 그룹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모든 사업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고 동반 성장하는 '비즈니스 워드 포스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